

## 범죄자들의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최 윤 미                      이 지 연<sup>†</sup>                      양 난 미  
강원대학교                      인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영적 안녕 상태는 일반인들의 삶의 의미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삶의 질을 높인다고 알려져 왔다. 본 연구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남성 재소자 26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범죄자들의 영적 안녕 수준은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간접영향만 유의미하였다. 즉, 영적 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았으며 이러한 신념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주요어 : 범죄자,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

---

<sup>†</sup> 교신저자 : 이지연, 인천대학교 교육학과, 인천시 남구 도화동 177  
Tel : 032-770-8176, E-mail : becoming@incheon.ac.kr

범죄의 예방과 방지는 사회 전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예방과 대처 방안을 상담심리학 분야에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 범죄는 정신건강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특히 범죄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과 분노 조절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일어난 유영철의 연쇄살인 사건(한국일보, 2007)과 같은 범죄나 조승희의 총기난사 사건(워싱턴포스트, 2007)을 통해 볼 때 개인의 자기 조절이나 통제실패로 인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위가 사회에 엄청난 손실과 상처를 안겨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공격성 관련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범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와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들(신영철, 김혜정, 정재열, 신우승, 이영찬, 2005; 홍성렬, 2001)에서는 공통적으로 범죄자들이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등을 보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스트레스 대처하는데 취약하여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충동성 수준이 높은 재소자들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분노표출과 억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영철, 김혜정, 정재열, 신우승, 이영찬, 2005). 또한 정유희와 안창일(2004)은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NEO-PI-R 반응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재범집단은 초범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빈약하며, 갈등상황에서 타협하기가 어렵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재범집단은 분노감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충동적인 감정폭발을 보이며, 지루함을 느끼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약하고, 갈등상황에 취약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자에게 있어 공격성의 통제에 전인적 안녕은 무시할 수 없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인적 안녕은 인간의 신체·심리·영성의 최적의 통합된 상태(Myers, 1992)로서 인간을 신체, 심리, 영성이 함께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를 기초로 발달한 상담심리학에서도 최근 인간의 전인적 안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미국 미네소타 교정국 Mental Health Service Unit의 교도소 프로그램에는 12주간의 분노조절프로그램에 2회의 영성/도덕성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영성이나 영적 안녕 상태가 공격성 조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에서는 종교 혹은 영적 문제를 정신의학 분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임상적인 상태를 ‘신앙(faith)의 상실 혹은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 고통스러운 경험·새로운 신앙으로 귀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혹은 제도화된 교회나 종교기관과 관련되지 않은 영적인 가치에 의문을 갖는 문제’로 정의하였다(APA, 1994). 또한 Scotton, Chinen 및 Battista(1996)는 자아초월 정신의학 및 심리학 지침서(Textbook of Transpersonal Psychiatry and Psychology)의 내용 중 종교와 영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영성측면은 임상·상담분야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그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으며(Walsh, 1999), 또한 최근 전인적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개인의 신체, 마음뿐만 아니라 영성이 함께 통합되면서 영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사회의 모든 개인이 최상의 건강과 안녕을 누리도록 돕는데 있기 때문에 영성의 측면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지아, 2002).

영성은 종교성(religiosity) 및 종교(religion)와 자주 혼동하여 사용하는데, 영성이 종교성이나 종교와 일치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다. 종교는 조직화된 교회 혹은 종교적인 기관에서의 믿음과 실제(practices)를 고수하는 것(Shafraanske & Maloney, 1990)이며, 종교성은 특정 종교라는 맥락 안에서 공격적이고 제도화된 표현(Westgate, 1996)이다. 그러나 영성은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종교의 모든 양상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영성은 종교가 아니며 영성이 경험과 관계된 것이라면, 종교는 경험을 개념화한 것과 관계된다. 영성은 가슴에서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종교는 그 경험을 제도 안에 포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은 종교보다 더 주관적인 경험으로, 특정 종교의 입회를 뛰어넘는 인간과 초월자(a Higher Being) 사이의 초월적인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Stanard, Sandhu, & Painter, 2000). 즉, 영성은 대상자의 종교적인 기호, 종교적인 신념 또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한 것, 그 이상의 것이다.

Ulanov(2002)는 영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신(절대자)과의 연결을 위한 매개자로서 대인간의 연결을 강조했다. 이것은 영성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인간관계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Erikson(1963)은 인생 발달 단계에서 출생 후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기본 신뢰감(basic trust)이 신앙 발전에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Kirkpatrick(1999)은 신(절대자)과의 관계가 중심인 종교적인 신념과 행동을 실제 유아-애착대상 관계라는 애착 과정으로 명시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부모와 같은 특정인에 대해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를 갖는 애착과 영성을 함께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관계를 통한 심리적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상담 연구 및 실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llison(1983)은 인간의 영성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고취시키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즉, 영성은 인간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의 모든 측면에 두루 퍼져있는 힘으로써 자신, 타인, 자연, 그리고 신(절대자)과의 관계에서 경험된다. 그리고 Stoll(1989)은 영성을 절대자나 우주와의 초월적인 관계,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관계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개인적인 추구하고 존재에 의미를 주는 세계와 관련되어진 신념으로, 당면한 현실 상황을 초월하여 신비, 더 높은 힘, 절대자(신) 또는 우주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능력이며 신뢰, 희망, 의미, 사랑과 같은 삶의 최상의 가치를 완성하도록 추구한다. Burkhardt(1989)는 영성을 하나의 비밀한 내적 탐구과정으로 표현하였고, 인간 삶의 근본원리, 절대 진리의 체험,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믿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보다 더 신비로운 높은 힘, 신과의 상호 연결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인간의 영적 본질과 관련하여 영성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을 초월하여 절대자(신), 자신, 이웃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여 희망, 의미, 사랑과 같은 삶의 최상의 가치를 완성하도록 하는 능력이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는 힘이다. Hill과 Smith(1985)는 영성이란 인간을 활기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이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위한 개인의 추구라고 하였다. Seaward(1991)는 영성을 자신과 개인의 가치체계에 대해 배우고 이 지식을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영성은 종교성 및 종교와 일치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구별되는 개념이다. 영성은 종교보다 더 주관적인 경험으로, 특정 종교의 입회를 뛰어넘어 인간과 초월자 사이의 초월적인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Standard, Sandhu & Painter, 2000). 영적 안녕이란 인간에게 확신을 주는 기본적 신뢰감과 안정감 안에서 나타나며, 사람들이 혼란과 위협에 직면했을 때, 차분하고 안정적인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정서적 기초가 된다(Johnson, 1945)

이와 같이 영성과 영적 안녕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하고, 절대자와 자신, 이웃과의 의미 있는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초래하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박지아(2002)는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 영성이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해서 적응유연성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 외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보호요소로서 영적 안녕을 종교생활(Bogenschneider, 1996), 종교적 믿음(Werner, 1989), 종교적 신앙심(Benson, 1998)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이러한 종교적 안녕이 주요한 보호요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신(절대자)을 안정 기저로 느끼며 차분하고 안정적인 평

온을 되찾아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받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사람들의 경우 영성의 성숙을 꾀한다면 재범의 방지는 물론, 각 개인의 사회적응과 성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영성과 영적 안녕 상태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하고, 절대자와 자신, 이웃과의 의미 있는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초래하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영성 자체가 긍정적 정서를 초래하는 것인지, 영성이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격성을 완화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본 연구가 출발한다. 그리고 그 심리적 기능의 일종으로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고려했다. Johnson(1945)에 따르면 영적 안녕이 사람들이 혼란과 위협에 직면했을 때, 차분하고 안정적인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정서적 기초라고 지적했고, 범죄자들의 분노 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의 취약성은 Bandura(1977)가 주장한 효율성 기대수준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사람이 행동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는데 효율성 기대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Lazarus & Folkman, 1984). 그가 말하는 효율성 기대 수준이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말한다. Lazarus와 Folkman(1984)에 따르면 효율성 기대는 대처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차적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개인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며, 대처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부정적 정서와 대처 행동의 관계는 매우 긴

밀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기분(mood)은 사고와 사회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Catanzaro & Mearns, 1990).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기분을 그 자체로 느끼지 않고 조절을 하며, 조절된 기분이 사람들의 사회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 경험되는 기분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개인이 부정적 기분이 들었을 때, 기분의 조절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를 통해 부정적인 기분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기대를 하게 된다. 즉, 부정적 기분이 들었을 때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를 통해 부정적인 기분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수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수준을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라 부른다.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encies: NMRE)는 부정적인 기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그 기분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주관적 신념으로 정의된다(Catanzaro & Mearns, 1990).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불쾌한 기분일 때도 스스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기분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Mearns & Cain, 2003). Rotter(1966)의 이론에 의하면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는 혼란스러운 정서를 느끼는 상황에서 사건의 통제부위에 대한 신념과도 비슷하다(Catanzaro & Laurent, 2004). 다시 말해, 개인이 어떤 감정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실제로 하는 행동과는 상관없이 어떤 감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

서 주어진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분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치는 그 자체로 기분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미경, 1998). 영적 성숙은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소망을 갖도록 하며, 기본적으로도 지속적인 신뢰와 신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적 삶의 개발은 도덕적 지지와 용기, 신념, 힘의 자원으로서 기여한다. 영적 삶을 발전시킨다면 안정감과 안전감, 마음의 평화, 자신감, 무조건적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인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적절한 분노와 공격행동을 조절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지는 채소자들이 영성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지 또 그 기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영적 안녕이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Walker, 2000)를 비롯해 생활스트레스(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사회불안(서경현, 김신섭, 박성연, 2007), 자살의도(강은실, 송양숙, 조향숙, 2004)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되고 있다. 그러나 영성이 어떤 내적 심리적 기제를 통해서 인간의 부정적 측면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영적 안녕이라는 변인이 과연 공격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개인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 관계를 매개하는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영성이 부정적인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적인 조화와 평화, 감사와 만족, 타인과의 지지적인 관계, 긍정적 정서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는 연구 근거(Voughan, 1986; Morberg,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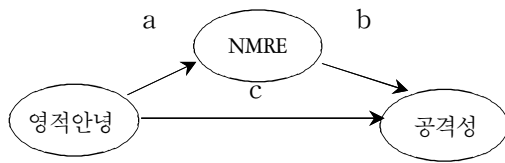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하여 영적 안녕 수준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가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방 법

###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영성,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 지역 4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교정담당자가 실시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총 297부가 회수되

었다. 이 중에서 5문항 이상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한 척도 내에서 동일한 값을 연속적으로 5개 이상 표시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을 한 32부를 제외하고 265부의 질문지 내용이 자료처리 되었다.

참여자 연령은 21-75세(평균 39.02세), 종교는 기독교 49.1%, 불교가 25.3%, 천주교가 11.3%, 종교 없음이 11.7%, 무응답이 2.6%, 학력은 초졸이 24.2%, 중졸이 33.2%, 고졸이 37.0%, 대졸 이상 4.9%, 무응답이 0.8%이었다. 주요 범죄유형은 살인 23.0%, 절도 18.9, 폭력 11.3%, 성폭력 8.3%, 사기 6.8%, 기타 27.5%, 무응답 4.2%이었고 전과 경력은 초범이 26.0%, 2범이 23.8%, 3범이 21.5%, 4범이 10.2%, 5범이 16.2%, 무응답이 3.0%였다.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 측정도구

####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를 박지아(2003)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

표 1. 참여자의 특성(%)

	초범	2범	3범	4범	5범	무응답	전체
살인	35(57.4)	8(13.1)	9(14.8)	2( 3.3)	5( 8.2)	2(3.3)	61(23.0)
절도	6(12.0)	14(28.0)	12(24.0)	6(12.0)	11(22.0)	1(2.0)	50(18.9)
폭력	6(20.0)	8(26.7)	7(23.3)	3(10.0)	5(16.7)	1(3.3)	30(11.3)
성폭력	4(18.2)	7(31.8)	8(36.4)	1( 4.5)	2( 9.1)		22( 8.3)
사기	6(33.3)	5(27.8)	4(22.2)	2(11.1)	1( 5.6)		18( 6.8)
기타	12(16.4)	17(23.3)	15(20.5)	9(12.3)	18(24.7)	2(2.7)	73(27.5)
무응답	2(18.2)	2(18.2)	2(18.2)	4(36.4)	1( 9.1)		11( 4.2)
전체	69(26.0)	61(23.0)	57(21.5)	27(10.2)	43(16.2)	8(3.0)	265(100.0)

용하여 영적 안녕 수준을 측정했다. 이 척도는 종교적 영적 안녕과 실존적 영적 안녕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교적 영적 안녕은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영적인 안녕이고 실존적 안녕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영적인 안녕이다. 이 척도는 종교적 영적 안녕 문항(예, 나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다지 큰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다 10개와 실존적 영적 안녕 문항(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나는 살아갈 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믿는다)10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6점 Likert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loutzian과 Ellison(1982)의 척도에 기초하여 개발한 한국판 영적 안녕 척도(전경구, 정봉도, 김영환, 2000)는 요인분석결과 2개의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서경현, 전경구, 2004).

본 연구에서는 원문을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박지아(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박지아(2003)가 보고한 신뢰도는 종교적 영적 안녕이 .90, 실존적 영적 안녕이 .87, 전체 척도가 .91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3, .76, .85였다.

####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 척도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atanzaro와 Mearns(1990)가 개발하고 이수정, 이훈구(1997)가 TMMS(Trait Meta-Mood Scale)를 번안하고 타당화 연구를 실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분이 나쁠 때 나는’이라는 대처행동에 대한 서술문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문항은 부정적 기분을 다루는 행동적, 인지적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총 30 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15문항은 역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atanzaro와 Mearns(1987)는 .86-.92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8이었다.

#### 공격성 척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척도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공격성 척도 2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개감, 분노감이라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Buss와 Perry(1992)가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공격성이 .85, 언어적 공격성이 .72 분노감이 .83, 적대감 .77, 서수균과 권석만(2002)은 .74, .73, .67, .76, 전체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신체적 공격성이 .63, 언어적 공격성이 .50, 적대감이 .68, 분노감이 .49, 전체 신뢰도가 .84. 로 보고되었다.

#### 자료분석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신뢰도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  $\alpha$ 를 검토하였다.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하였고 영적 안녕과 공격성을 매개하는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의 효과에 관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변인은 각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이용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 이에 비하여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2.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결 과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와 공격성의 상관분석 결과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영적 안녕과 공격성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영적 안녕과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와 공격성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에 대한 매개모형검증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적 안녕과 공격성의 관계에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매개모형은 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제 3의 변인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매개모형을 나타낸다.

매개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Baron & Kenny(1986), Judd & Kenny(1981)의 절차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르면 우선 경로 a와 경로 b가 유의미한지, 그리고 매개효과 ab가 유의미

표 2.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와 공격성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M	SD
1. 종교적 영적 안녕	1.00							3.54	.78
2. 실존적 영적 안녕	.43**	1.00						3.83	.66
3. NMRE	.25**	.48**	1.00					3.21	.47
4. 신체적 공격성	-.16**	-.07	-.14*	1.00				3.08	.48
5. 언어적 공격성	-.07	-.04	-.12*	.55**	1.00			3.42	.57
6. 적대감	-.16*	-.24**	-.25**	.57**	.61**	1.00		3.44	.56
7. 분노감	-.01	-.20**	-.31**	.52**	.28**	.46**	1.00	3.46	.60

주. \*\*\*  $p < .001$ , \*  $p < .05$



표 3. 공격성에 대한 매개모형 적합도 지수

	<i>df</i>	$\chi^2$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매개모형	59	152.455	.933	.911	.077 (.062-.093)

한지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해야 한다(홍세희, 2001).

표 3에 나타난 매개모형 검증 결과를 보면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영적 안녕과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FI, TLI, RMSEA 지수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는 이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로 매개모형의 경로  $a$  ( $\beta=.58, p<.001$ )와  $b$  ( $\beta=-.32, p=.001$ )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매개모형의 각 변인간 직접효과들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적 안녕과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는 정적인 관계에,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와 공격성은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는 영적 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자들이 스스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부정적 정서조절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범죄자들의 공격성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통한 매개효과(또는 간접효과)는 직접효과  $a$ 와  $b$ 를 곱한  $ab$

로 정의된다.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b$ 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Z는 아래의 식을 통해 구해지며(Baron & Kenny, 1986), 이 식에서  $SE_a$ 는  $a$ 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표 4에 제시된  $a, b$ ,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매개효과  $ab$ 는 .106이고  $SD_{ab}=0.034$ ,  $Z_{ab}=3.118$ 로  $\alpha=.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 는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즉 경로  $a$ 와  $b$ 가 유의미하고, 매개효과  $ab$ 가 유의미하므로 연구에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적 안녕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모형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표 4. 공격성에 대한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C.R.
영적 안녕 → NMRE(a)	.449	.576***	.061	7.300
NMRE → 공격성(b)	-.236	-.320***	.068	-3.447
영적 안녕 → 공격성(c)	.006	.010	.053	.113



그림 2. 완전매개모형

표 5.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비교

	df	$\chi^2$
완전매개모형	60	152.467
부분매개모형	59	152.455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두 모형의  $\chi^2$ 차이 값은 0.012이며, 자유도의 차이값은 1로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 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부분 매개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모형을 선택하므로 (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는 영적 안녕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완전매개(full mediation)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자들의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영적 안녕이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간접영향은 유의미하였다. 이는 범죄자의 영적 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았으며 이러한 신념이 높을수록 범죄자들의 공격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의 의미나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영적 안녕 변인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영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Walker, 2000)에 근거하여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영적 안녕과 공격성의 관계에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구조모형 검증 결과 지지 되었는데 특히,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는 두 변인을 완전매개 하였다. 이는 범죄자들의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통한 간접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의미이다. 즉, 범죄자들의 영적 안녕수준은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영적 안녕수준이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Walker, 2000)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에서 많은 경우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공격성이나 재범 등에 조절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조절과 같은 심리내적 효능감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요인, 즉 종교적 혹은 실존적 영적 안녕 상태가 어떠한 형태로든 공격성과 관계를 갖고 있으며 공격성 통제에 있어 분노조절 기대수준을 통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근래 새로이 중요한 변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의 의미 추구 요인, 즉 영적 안녕에 대한 관심(예, Myers,

1992)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일 만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 영성이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해 적응 유연성의 특성을 보인다는 박지아(2002)의 연구나 Werner(198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영성이 어떤 내적 심리적 기제를 통해서 인간의 부정적 측면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심리적 기제 가운데 하나인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그 기저에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영적 안녕 수준은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에 강한 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영적 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자들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영적 안녕이 정서적인 기초(Johnson, 1945)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구체적으로 영적 안녕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많은 연구에서 영적 안녕이 다양한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삶의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 왔는데 이 연구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심리적인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공격성에 강한 부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자들의 공격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기분이 사회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Catanzaro & Mearns, 1990)는 선행연구 결과나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수준이 낮은 사람이 부정적인 기분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Mearns & Cain,

2003)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들에게 내재된 분노와 공격성의 조절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내에서 개인이 어떤 감정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러한 감정을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험과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조절에 대한 확신감은 이들의 공격성 조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영적 안녕상태와 공격성의 관계 및 분노 조절기대 수준의 매개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또한 수감자들 중에서도 연구 대상이 남성 재소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성별 변인에 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기에는 유보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80%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최근 교정시설의 일반적인 현상인지 본 연구상의 표집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지는 최근 통계를 통해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음이 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더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범죄자들의 공격성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 상담심리학 분야의 범위를 넓혀 재소자의 분노 조절, 혹은 생산적 분노 관리 프로그램마련에 대한 기초 자료라고 본다면 의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하여 공격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일차적으로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격성에 있어서 교도소에 수감된 집단이기 때문에 신체적 공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중간정도의 공격성( $M = 3.08$ )을 보였다. 이 결과는 수감시설에서 복역 중인 피험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반사회적 공격성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공격성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 수준,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의 영적 안녕이라는 요인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실존적 변인이며 이는 분노 통제라든가 공격성 조절 등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노 통제 프로그램 개발에 영적 안녕이라는 요인을 첨가할 필요성을 시사 하는 것이다.

또한 영적 안녕이 인간의 여러 심리적 문제에 대한 보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Walker, 2000; 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서경현, 김신섭, 박성연, 2007; 강은실, 송양숙, 조향숙, 강성년, 2004)에서 더 나아가 영적 안녕이 심리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다, 영적 안녕이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통해 간접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새롭게 밝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영적 안녕이 어떤 기제를 통해 심리적 문제에 완충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폭넓은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은실, 송양숙, 조향숙, 강성년 (2004). 청소년의 자살의도, 우울, 영적 안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3(2), 190-199.
- 김미경 (1997). 정서주의력,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기분조절기대치가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아 (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 간의 관계-적응유연 청소년, 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김신섭, 박성연 (2007). 고등학생의 영적 안녕과 사회불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99-616.
- 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생활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7(4), 1077-1095.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87-501.
- 신영철, 김혜정, 정재열, 신우승, 이영찬 (2005). 성격장애로 인한 상습범죄자의 행동교정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법무부자료 미발표.
- 워싱턴포스트 (2007). “조승희 병력 비공개가 참극 불렀다” 총기난사 사건. (워싱턴포스트, 2007. 8. 28).
- 이수정, 이훈구 (1997). TMMS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정유희, 안창일 (2004).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NEO-PI-R 반응. 한

- 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25-740.
- 한국일보 (2007). “유영철 검거에서 자백까지..” (한국일보, 2007. 7. 8).
- 홍성렬 (2001). 교정에 대한 실존주의 심리학적 접근. *교정연구*, 13, 7-29.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구조 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워크샵 교재.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68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nson, P. L. (1998). *The troubled journey: A profile of American youth*. Minneapolis: Search Institute.
- Bogenschneider, K. (1996). Family related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45, 127-138. in J. E.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New York: Pergamo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urkhardt, M. A. (1989). Spirituality: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3), 69-77.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tanzaro, S. & Laurent, J. (2004). Perceived family support;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coping, and adolescent alcohol use. *Addictive Behaviors*, 29, 1779-1797.
- Catanzaro, S. & Mearns, J. (1990). Measuring generalize expectancies for Negative Mood Regulation: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546-563.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40.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Inc, 247-274.
- Hill, L., & Smith, N. (1985). *Self-Care Nursing*. Appleton- Century -Crofts, 186-211.
- Hu, L. 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ohnson, P. E. (1945). *Psychology of religion*. New York: Abingdon- Cokesbury.
- Judd, C. M. & Kenny, D. A. (1981). Process Analysis: Estimating mediation in treatment evaluations. *Evaluation Review*, 5(5), 602-619.
- Kirkpatrick, L. A. (1999). Attachment and

- Religious Representations and Behavior. In Cassidy, J., & Shaver, P. 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Springer.
- Mearns, J. & Cain, J. (2003).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occupational stress and their burnout and distress, *Anxiety, Stress and Coping*, 10(1), 71-82.
- Moberg, D. O. (1974). Spiritual well-being in late life. In J. F. Gubrium(Ed.), *Late life: Communities and environment polic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1974.
- Morberg, D. O. (1984). Subjective measures of spiritual well-be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5(4), 351-364.
- Myers, D. G. (1992). *The pursuit of happiness*. New York: Morrow.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 D. Perman(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224-236). NY: John Wiley & Son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1-29.
- Scotton, B. W., Chinen, A. B., & Battista, J. R. (1996). *Textbook of Transpersonal Psychiatry and Psycholog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388- 395.
- Seaward, B. L. (1991). Spirituality Well-being: A Health Education Model.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2(3), 166-169.
- Shafranske, E. P., & Maloney, H. N. (1990). Clinical psychologists' religious and spiritual orientations and their practice of psychotherapy. *Psychotherapy*, 27, 72-78.
- Stanard, P. S. Sandhu, D. S., & Painter, L. C. (2000). Assessment of spirituality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2), 204-210.
- Stoll, R. I. (1989). The essence of spirituality. In V. B. Carson, *Spiritual dimensions of nursing practice*. 4-23, Philadelphia, PA: W. B. Saunders.
- Ulanov, A. (2002). *Winnicott and Spiritual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Korea Psychotherapy Institute, Seoul.
- Voughan, F. (1986). *The inward arc: Healing and wholeness in psychotherapy and spirituality*. Boston, New Science Library.
- Walsh, F. (1999).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Walsh F(Ed.), *Spiritual Resources in Family Therapy* (pp.3-27). New York: Guilford.
- Walker, E. A. (2000). *Spiritual support in relation to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ggressive outcom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nner city young adolescents*.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 Werner, E. E. (1989). High- 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 Westgate, C. E. (1996). Spiritual wellness &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1), 26-35.

최윤미 등 / 범죄자들의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원 고 접 수 일 : 2008. 3. 3

수정원고접수일 : 2008. 4. 13

게 재 결 정 일 : 2008. 5. 9

## **The Effects of Spirituality on the Aggression Levels of Prisoners - With the Mediation of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

**Yoon Mi Choi**

Kangwon National University

**Jee Yon Lee**

University of Incheon

**Nan Mee Ya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pirituality on the aggressive nature of prisoners and how they are influenced by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For the study, 265 male prisoners from Kangwon-Province Jail were studied. Based on the results, our hypothesis, that spirituality does indeed affect prisoners' aggression with the mediation of negative mood regulation, was supported and verified. The direct effect of spiritual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ndirectly, the effects on the mediation of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were substantia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high levels of spiritual wellbeing regulates and may even control one's negative moods, and as a result,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could possibly minimize aggression and anger in such people.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other similar studies.

*Key words : spirituality, prisoners, aggression,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y*